

EDU-08 사전·사후 공통평가 · 1/3

사전과 사후에 같은 역량을 확인하되, 답을 외우기보다 선택 이유를 적는다.

1. 보험과 생활위험 관리에서 가장 먼저 할 일로 알맞은 것은?

- ☐ A. 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망·질병·장해·배상 위험을 먼저 적는다.
- ☐ B. 광고의 혜택 문구만 비교한다.
- ☐ C. 문제가 생긴 뒤에 기록을 만든다.
- ☐ D. 주변 사람이 택한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.

2. 비교표에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할 요소는?

- ☐ A. 현재 보이는 금액만
- ☐ B. 비용·위험·기한·보호·증거
- ☐ C. 광고 순위와 후기 수
- ☐ D. 친구가 선택한 상품

3. 계약이나 거래 뒤 가장 안전한 기록 방법은?

- ☐ A. 기억해 둔다.
- ☐ B. 상대방이 보관하므로 지운다.
- ☐ C. 계약서·설명·거래·접수번호를 원본 형태로 보존한다.
- ☐ D. SNS에 개인정보와 함께 올린다.

4. 제도나 숫자가 바뀔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은?

- ☐ A. 오래된 블로그를 따른다.
- ☐ B. 교육자료 숫자를 영구 기준으로 쓴다.
- ☐ C. 신청·계약 시점의 공식 기관 안내와 기준일을 확인한다.
- ☐ D. 광고 상담원 말만 따른다.

5. 곤란이나 피해 징후가 생겼을 때 알맞은 태도는?

- ☐ A. 추가 차입·송금으로 시간을 번다.
- ☐ B. 연락과 서류를 피한다.
- ☐ C. 추가 피해를 멈추고 사실·기한·증거를 갖춰 공식 창구에 상담한다.
- ☐ D. 개인정보를 공개해 도움을 구한다.

EDU-08 사전·사후 공통평가 · 2/3

사전과 사후에 같은 역량을 확인하되, 답을 외우기보다 선택 이유를 적는다.

6. 사례 '보험료가 버겁다'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?

- ☐ A. 필수 보장·감액·납부 조정·해지 손실을 계약별로 확인한다.
- ☐ B. 오래된 것부터 모두 해지한다.
- ☐ C. 대출로 보험료를 낸다.
- ☐ D.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

7. 사례 '실손 중복'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?

- ☐ A. 보상 방식과 중복 가입 내역을 공식 조회로 확인한다.
- ☐ B. 같은 보장을 계속 추가한다.
- ☐ C. 설계사 말만 믿는다.
- ☐ D.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

8. 사례 '갱신 보험료'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?

- ☐ A. 갱신 주기·변동 가능성·장기 유지 비용을 묻는다.
- ☐ B. 지금 보험료만 비교한다.
- ☐ C. 갱신은 자동으로 같은 금액이라 생각한다.
- ☐ D.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

9. 사례 '고지 누락'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?

- ☐ A. 질문서를 정확히 읽고 사실대로 답한 기록을 남긴다.
- ☐ B.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해 뺀다.
- ☐ C. 설계사가 쓰라는 대로 서명한다.
- ☐ D.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

10. 사례 '청구 기록 부족'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?

- ☐ A. 서면 사유·약관 근거·접수기록을 요청해 분쟁 파일을 만든다.
- ☐ B. 포기한다.
- ☐ C.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한다.
- ☐ D.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

EDU-08 정답과 해설 · 3/3

문항별 정답과 선택지 해설

1. 정답 A

- A.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. 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망·질병·장해·배상 위험을 먼저 적는다.
- B. 이 선택은 '광고의 혜택 문구만 비교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. 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망·질병·장해·배상 위험을 먼저 적는다.
- C. 이 선택은 '문제가 생긴 뒤에 기록을 만든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. 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망·질병·장해·배상 위험을 먼저 적는다.
- D. 이 선택은 '주변 사람이 택한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. 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망·질병·장해·배상 위험을 먼저 적는다.

2. 정답 B

- A. 이 선택은 '현재 보이는 금액만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, 위험, 기한,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.
- B.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, 위험, 기한,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.
- C. 이 선택은 '광고 순위와 후기 수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, 위험, 기한,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.
- D. 이 선택은 '친구가 선택한 상품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, 위험, 기한,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.

3. 정답 C

- A. 이 선택은 '기억해 둔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·상대·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.
- B. 이 선택은 '상대방이 보관하므로 지운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·상대·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.
- C.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·상대·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.
- D. 이 선택은 'SNS에 개인정보와 함께 올린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·상대·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.

4. 정답 C

- A. 이 선택은 '오래된 블로그를 따른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한도·요건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.
- B. 이 선택은 '교육자료 숫자를 영구 기준으로 쓴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한도·요건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.
- C. 한도·요건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.
- D. 이 선택은 '광고 상담원 말만 따른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한도·요건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.

5. 정답 C

- A. 이 선택은 '추가 차입·송금으로 시간을 번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빠른 차단, 증거 보존,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.
- B. 이 선택은 '연락과 서류를 피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빠른 차단, 증거 보존,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.
- C. 빠른 차단, 증거 보존,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.
- D. 이 선택은 '개인정보를 공개해 도움을 구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빠른 차단, 증거 보존,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.

6. 정답 A

- A. 해지 전 보장 공백과 환급 손실을 비교한다. 계약별 조정 가능성은 보험회사에 확인한다.
- B. 이 선택은 '오래된 것부터 모두 해지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해지 전 보장 공백과 환급 손실을 비교한다. 계약별 조정 가능성은 보험회사에 확인한다.
- C. 이 선택은 '대출로 보험료를 낸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해지 전 보장 공백과 환급 손실을 비교한다. 계약별 조정 가능성은 보험회사에 확인한다.
- D. 이 선택은 '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해지 전 보장 공백과 환급 손실을 비교한다. 계약별 조정 가능성은 보험회사에 확인한다.

7. 정답 A

- A. 정액과 실손 보상 방식을 구분한다. 실제 지급은 약관과 다른 계약의 보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- B. 이 선택은 '같은 보장을 계속 추가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정액과 실손 보상 방식을 구분한다. 실제 지급은 약관과 다른 계약의 보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- C. 이 선택은 '설계사 말만 믿는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정액과 실손 보상 방식을 구분한다. 실제 지급은 약관과 다른 계약의 보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- D. 이 선택은 '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정액과 실손 보상 방식을 구분한다. 실제 지급은 약관과 다른 계약의 보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
8. 정답 A

- A. 미래 보험료가 바뀔 구조인지 확인한다. 정확한 향후 보험료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.
- B. 이 선택은 '지금 보험료만 비교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미래 보험료가 바뀔 구조인지 확인한다. 정확한 향후 보험료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.
- C. 이 선택은 '갱신은 자동으로 같은 금액이라 생각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미래 보험료가 바뀔 구조인지 확인한다. 정확한 향후 보험료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.
- D. 이 선택은 '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미래 보험료가 바뀔 구조인지 확인한다. 정확한 향후 보험료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.

9. 정답 A

- A. 질문받은 사실을 정확히 고지한다. 누락은 계약 해지나 보험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.
- B. 이 선택은 '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해 뺀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질문받은 사실을 정확히 고지한다. 누락은 계약 해지나 보험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.
- C. 이 선택은 '설계사가 쓰라는 대로 서명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질문받은 사실을 정확히 고지한다. 누락은 계약 해지나 보험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.
- D. 이 선택은 '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질문받은 사실을 정확히 고지한다. 누락은 계약 해지나 보험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.

10. 정답 A

- A. 사실·약관·답변을 문서로 모은다. 이후 내부 민원과 분쟁조정에 같은 기록을 사용한다.
- B. 이 선택은 '포기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사실·약관·답변을 문서로 모은다. 이후 내부 민원과 분쟁조정에 같은 기록을 사용한다.
- C. 이 선택은 '온라인에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사실·약관·답변을 문서로 모은다. 이후 내부 민원과 분쟁조정에 같은 기록을 사용한다.
- D. 이 선택은 '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사실·약관·답변을 문서로 모은다. 이후 내부 민원과 분쟁조정에 같은 기록을 사용한다.